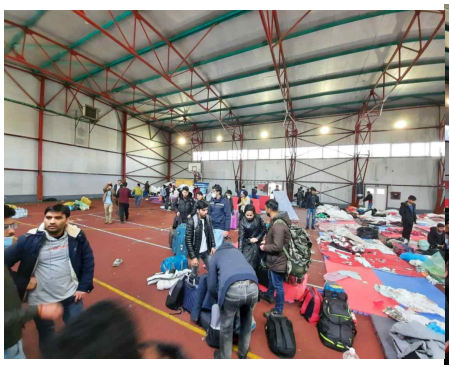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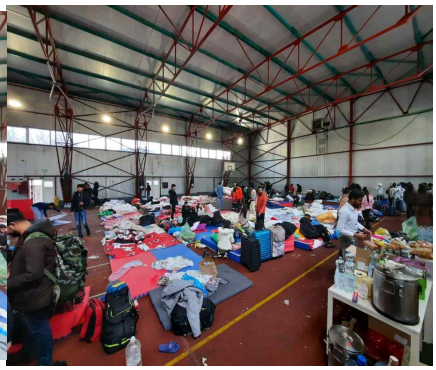
공공서식 한글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2022년 3월 기도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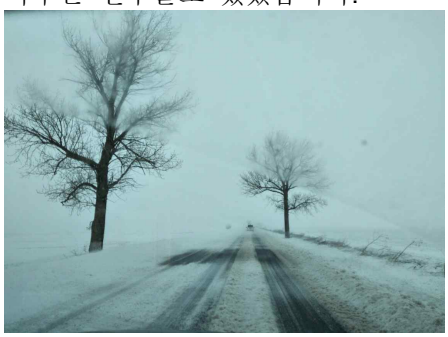
김진엽 선교사


3월 루마니아의 겨울은 아직 차가운 눈과 비 바람이 불면서 봄이오는 것을 시샘하는 제법 추운 날씨였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피난민들의 수는전쟁이 일어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벌써 1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들 중 약 100만명이 폴란드로 피난을 갔고, 몰도바, 불가리아, 헝가리등, 루마니아에도 약 27만명의 난민들이 피난을 왔습니다. 그들 중 약 19만명은 잠시 루마니아에 체류한 후 서유럽으로 이미 19만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피난민들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수도 부카레스트의 돔 경기장에 약 3만명을 수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저희 교회가 있는 볼른타르에도 약 700여명의 우크라이나 외국 유학생들이 전쟁을 피해 저희 교회 인근에 있는 실내 체육관과 학교에서 분산되어 체류했습니다. 대부분 인도학생들이었고 스리랑카 아시아계 학생들(중국 대만)도 몇명 보였습니다. 루마니아 국경을 넘기 위해 차량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며칠 씩 걸어서 물과 식량없이 힘들게 온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 목사와 미하이 성도님과 함께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쓰던 메트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봉사자들과 함께 지저분해진 빈 자리들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들을 도왔습니다. 육신적으

<부카레스트에서 흐르쇼바(Harsova)를 지나 Tulcea(툴체아)로 가는 길>

로 마음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커피와 차를 나누어 주고 빵과 잼 바나나등 먹을 것들을 나누어 주기고 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우리들의 섬김에 고마워하며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나누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공공서식 한글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우크라이나 오뎃사 할렐루야 교회 성도일부>


<이삭체이 국경 Isaccei vama>

우크라이나에서 고려인들과 우크라이나 현지인들을 섬기고 있던 오뎃사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이 이 번 전쟁으로 인해 약 50여명이 루마니아로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우크라이나에서 루마이아로 피난온 정한규 김혜경 선교사님 가정과 성도님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저희 교단 이성헌, 이종전 선교사님과 함께 한 팀이 되어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현지 루마니아 교회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정선교사님 가정이 아파트에 방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머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Tulcea(툴체아)에서 가까운 Isaccei (이삭체이)세관(국경)을 통해 다시 차량으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숙소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이 루마니아 콘스탄자에서 무료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 잠잘 곳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그리고 더 많은 피난민들을 장기적으로 섬기기 위해 루마니아 브랴쇼브에도 숙소를 준비하고 마련 중에 있습니다. 콘스탄차에 있는 베니목사의 도움으로 약 15개의 방중 22명이 머물 수 있는 11개의 객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30명의 남은 피난민 성도들을 위해 브라쇼브 또는 콘스탄자에서 숙소를 더 알아 볼 예정입니다.

지금 루마니아에서는 많은 구호단체와 봉사단체들 루마니아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또는 독일이나 미국 영국, 유럽의 여러나라들에서 구호물품과 후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원한다면 워킹비자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려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에 온 피난민들의 80-90프로는 다시 서유럽 각국으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믿음교회에서도 평소에 모아둔 여러가지 옷들과 생활용품등을 아기옷들과 어린이 여성 남성을 구분하여 옷들을 분류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루마니아 교회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도우는 과정에서 선한일을 행하는 가운데에도 서로에 대한 불신이나 일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해 오해와 긴장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땅위에 인자의 온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는 그 말씀처럼 겸손하게 남을 자신보다 더 낫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지혜롭게 피난민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공공서식 한글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믿음교회 소식>

1)한글문화사역을 하려고 했던 일은 당분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저희 가족 모두 코로나 오미크론에 감염되어 약 2주간 가정에서 격리하게 되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피난민을 돕든 사역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2022년 3월 6일에 약 25명의 교회 멤버들이 공식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 교회의 정식 멤버로 받아들여졌고 교회의 사역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고 제안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과의 만남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소그룹 모임은 매주 12명의 성도들이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 깊히 배우면서 주님의 말씀위에 든든히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정소식>

1)자녀 (수아 16세 수진 13세)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화상으로 수업을 하다가 다시 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저와 자녀들은 1년비자를 받았는데 아직 아내(서경아)의 비자서류 행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안에 다시 모든 서류를 심사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매일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로운 가정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선교 관련 기도제목>

1) 우크라이나에서 루마니아로 피난 온 22여명의 우크라이나 현지인과 고려인 할렐루야 성도님들의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루마니아에 머무룰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나머지 30명의 성도들도 루마니아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2) 난민들을 돕기 위해 한 팀이 된 이성헌 이종전 선교사님과의 협력과 섬김의 사역을 지혜롭게 하나가 되어 기쁨과 감사로 잘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정한규 김혜경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크라이나 섬교사님 가정또한 자신들의 공동체 뿐만이 아니라 난민이 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4) 3월 8일(화) - 3월 13일(주일) 기간에 한국 세계선교협의회(KWMA)와 한국 교회 봉사단

공공서식 한글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의 관계자 그리고 일부 기독 방송사 기자가 우쿠라이나 전쟁에 따른 난민 지원 선발대 성격으로 팀(7-8명선)을 이뤄서 루마니아를 방문할 예정속에 루마니아 선교협의회에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현제의 국경 도시를 방문하여 피난민 상황과 긴급 구호, 필요한 부분들을 취재하여 고국 교계와 교회 알릴 계획임)



<툴체아에 있는 형제교회-우크라이나 난민교회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